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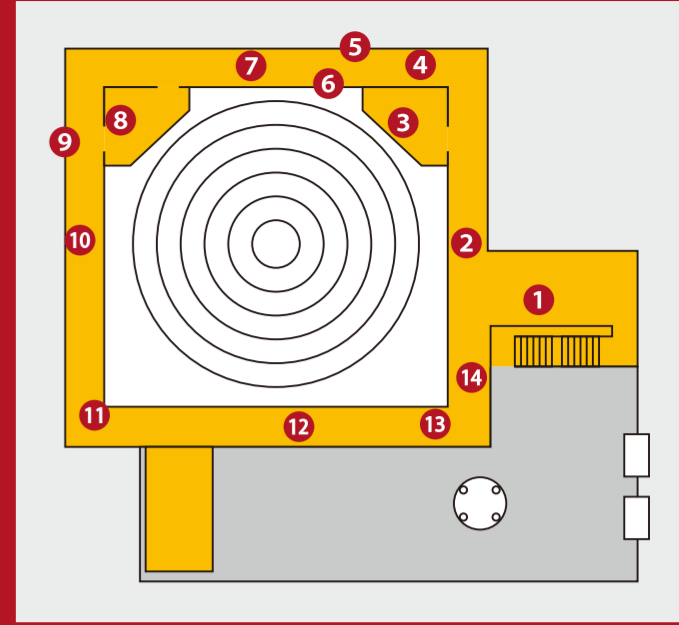
일본 만국 박람회

1970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일본 만국 박람회는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테마로 77 개국이 참가하여 6400만 명 이상의 입장객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일본 인구의 약 절반이 이곳 박람회장을 방문할 만큼 박람회 사상 역사에 남는 것으로 일본 역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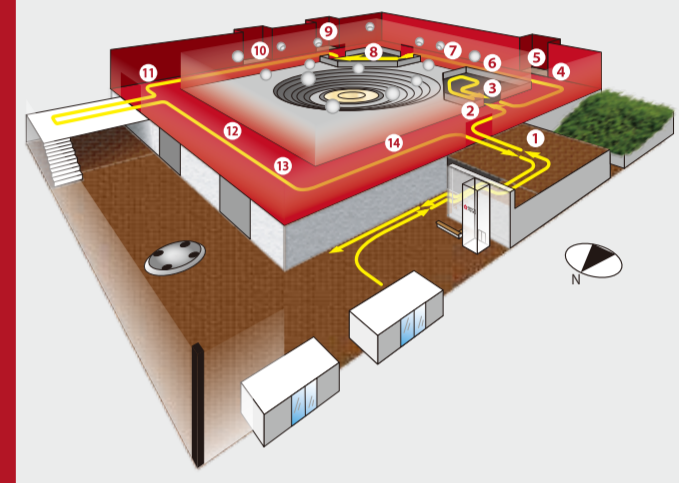
일본 만국 박람회 데이터

[개최 기간] 1970년 3월 15일~9월 13일 (183일간) [면적] 330헥타르
 [전시관 수] 116관 [입장자 수] 64,218,770명
 [참가 수] (해외) 76 개국, 4개 국제기구, 1개 정부기관, 캐나다 3주, 미국 3주 2도시, 독일 1개 도시, 2개 기업
 (일본) 일본 참가 업체 등의 수 1개 정부기관, 3개 공단 공사, 28개 기업 단체

위치도



입체전취도



- 1 심볼 존
- 2 준비에서 개막까지
- 3 철강관
- 4 패션
- 5 베스트 오브 엑스포
- 6 전무후무한 기록들
- 7 파빌리온 ☆ 파빌리온
- 8 테마관 (태양의 탑)
- 9 유니폼
- 10 축제 광장
- 11 백 스테이지의 1500 명
- 12 엑스포'70 컬렉션
- 13 Made in EXPO'70 ~ 모든 것은 만국 박람회로부터
- 14 폐막에서 만국 박람회 기념 공원으로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EXPO'70 파빌리온 가이드

EXPO'70 파빌리온

EXPO'70 파빌리온은 일본 만국 박람회 개최 당시 철강관이라는 파빌리온이었습니다. '철의 노래'를 테마로 콘서트가 열렸던 음악 홀로, 3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기간 중에 약 700만 명이 방문한 시설입니다. 일본 만국 박람회 개최 40 주년을 맞이한 2010년 3월 13일, 만국 박람회 기념관으로서 'EXPO'70 파빌리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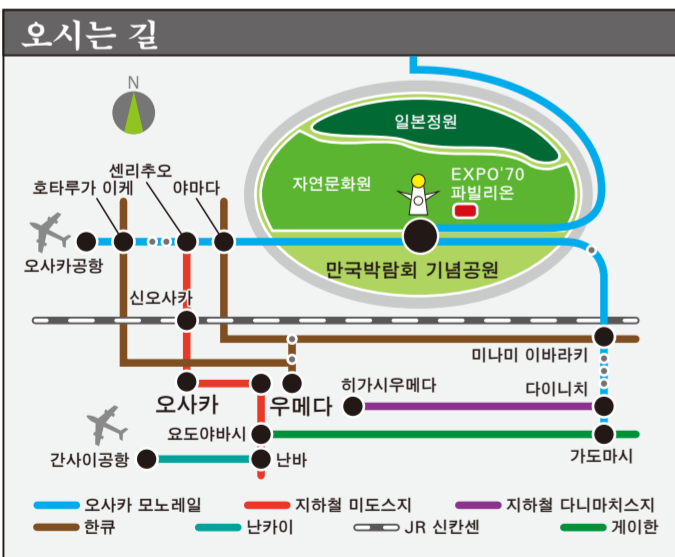
상설 전시 안내

EXPO'70 파빌리온의 메인 상설 전시장은 2층입니다. 한 변이 40미터인 회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번(160미터)을 돌아보면, 일본 만국 박람회의 이모저모와 그 부지로 정비된 만국 박람회 기념 공원의 변천 등을 영상과 기록 사진, 당시 전시되었던 기증 전시품, 새로 만든 모형 등을 이용하여 현장감 넘치는 전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의 상황과 그 최성기의 한가운데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일본 만국 박람회의 개최 준비, 박람회 기간 중의 각 파빌리온, 다양한 행사, 운영 상황, 만국 박람회 사상 최초의 기록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가 끝난 후 그 자리를 자립적인 숲으로 재생시키려는 노력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PO'70 파빌리온 기본 정보	
이용 기간	1월 2일~12월 27일 AM10:00 ~PM5:00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휴원일	매주 수요일 (국경일인 경우는 다음 날 휴원) ※ 4월 1일~5월 초순, 10월 1일~11월 30일까지는 무휴
요금	교과생 이상 200 엔, 중학생 이하 무료, 단체 20명 이상 160엔 ※ 자연 문화원 입장료(성인 250엔, 초중학생 70엔)가 별도 필요합니다. ※ 특별전 등이 열릴 때에는 별도 요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expo70.or.jp/k/>



한류 '미나미 이바라키' 역 '야마다' 역 '호타루가 이케' 역, 기타오사카 급행 '센리추오' 역, 오사카 시영 지하철 '다이니치' 역, 게이한 '가도마시' 역에서 오실 때에는 오사카 모노레일이 편리합니다.

- 오사카 국제공항에서 오실 경우
오사카 공항 → 오사카 모노레일 →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17분
-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오실 경우
간사이 공항 → 난카이 → 난바 39분~
난바 → 오사카 시영 지하철 미도스지선·기타오사카 급행 → 센리추오 29분
센리추오 → 오사카 모노레일 →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5분
- 신칸센으로 오실 경우
신칸센 '신오사카' → 오사카 시영 지하철 미도스지선·기타오사카 급행 → 센리추오 13분
센리추오 → 오사카 모노레일 →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5분

1 심볼 존

박람회 당시에 제작된 심볼 존 모형(1/200 스케일)입니다.

1 심볼 존

심볼 존은 '인류의 진보와 조화'라는 테마를 표현하기 위해 박람회장의 중앙에 설치된, 동서 150미터, 남북 1킬로미터의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는 엑스포 타워와 태양의 탑, 축제 광장, 만국 박람회, 만국 박람회 미술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무빙워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방문객이 넓은 박람회장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제 광장의 대형 지붕은 박람회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볼 수 있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기 위한 이정표가 될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대형 지붕은 폭 108미터, 길이 292미터, 무게 3320톤으로 지상에서 조립한 지붕을 6곳에 설치한 12기의 거대한 기중기를 사용하여 지상 30미터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데 48일이 걸렸습니다.



2 준비에서 개막까지

일본에서 만국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기 위한 유치 활동과 박람회장 계획 등 개막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던 사람들의 격동의 시간을 약 70점의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2 연대기

박람회 계획가 결정된 1965년부터 박람회가 개최된 1970년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체가 박람회 분위기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일본의 문화와 유행, 사회 현상 등 당시의 세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 입장요금, 입장권

준비 단계에서는 입장료의 요금 설정과 입장권의 제작이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의 입장료는 성인 800엔이라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 요금이었지만 파키 박람회의 요금을 참고하고 입장권 예측 등을 기초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만국 박람회인 만큼 여러 번의 신중한 검토를 걸쳐 요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입장권은 채문 무늬라는 매우 섬세한 모양이 그려지고 요란 인쇄로 제작된 것으로 지폐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위조 방지 처리를 하는 등 일본 기술의 정수를 집결한 것입니다.

2 만국 박람회 마크

박람회 마크는 박람회의 테마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시각화한 것으로 마크 전체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꽃잎은 오대주(아시아 주, 아메리카 주, 유럽 주, 아프리카 주, 오세아니아 주), 즉 세계를 나타냄과 더불어 세계가 손을 맞잡고 박람회에 참가하자는 의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중앙의 원은 일본의 국기를, 그 우위의 원 부분은 발전과 진보를 향한 여유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인상은 풍위와 조화를 표현함으로써 이 박람회가 세계적인 행사임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의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킷누들의 페키지 디자인을 고안한 오타카 다케시 씨가 담당하였습니다.

3 철강관

철강관은 일본철강연맹이 출전한 파빌리온입니다. 테마인 '철의 노래'에 걸맞게 전시관 전체의 이미지는 '철의 악기'로, 관 내에는 원형 홀이 있고 박람회 기간 중에는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예술가 프랑수아 바체가 제작한 철로 된 악기 조각 17작품이 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철강관의 종합 프로듀스와 설계는 도쿄문화회관(도쿄 우에노)을 설계한 마에카와 구니오 씨가 담당할 것으로 장식을 일체 생략한 절제된 외관이 그 중추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3 입체 음악당 (스페이스 시어터 홀)

박람회 당시에는 세계 최초의 입체 음악당(스페이스 시어터 홀) 공간입니다. 40여 미터 사방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중심에는 직경 10미터의 원형 무대가 있고 960여 개의 객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는 총 1008개로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람회 당시에는 음악과 링크시킨 레이저 쇼 외에도 클래식 콘서트와 노가쿠(일본의 가변 음악극) 같은 공연 등도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음향 기능은 없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패션

박람회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외출복으로 기모노를 많이 입었고 간단한 절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고 다녔던 카우보이 모자 등은 유행 아이템이었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동행한 사람들과 떨어지지 않도록 똑같은 바젠을 몸에 지니거나 똑같은 디자인의 모자를 쓴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5 베스트 오브 엑스포

소련관의 높이는 110m,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관에서 사용한 나무의 수는 약 306개, 미국관의 대기 시간은 약 4~5시간, 스위스관의 일루미네이션 수는 약 3만 2000개, 캐나다관의 거울 수는 약 4만 장 등 전시장의 No.1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 전무후무한 기록들

183일의 개최 기간 동안 매일이 신선한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장객 수 6400만 명, 하루 최고 입장객 수 83만 명, 미아 4만 8천 명, 습득한 돈 4800만엔 등 만국 박람회가 남긴 각종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의 열기와 유례 없는 이벤트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7 파빌리온 ☆ 파빌리온

만국 박람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파빌리온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국가, 기업, 단체가 건축, 영상, 테크놀로지의 정수를 극대화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를 각각의 생각을 담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조형미의 향연, 영상과 음향의 공간 예술, 모던, 사키멜러, 테크노, 전위, 모든 미래가 박람회장에 존재하였습니다. 각 파빌리온에서 제작된 팸플렛도 울드함아 느껴지지 않는 다양한 디자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각 파빌리온의 외관과 내부 전시, 수행원의 유니폼 등 당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너 안쪽에 마련된 영상은 모노레일을 타고 박람회장을 이동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박람회의 다양한 영상 라이브러리 중에서 모노레일 차량과 역사를 통과하는 모습 등의 영상을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순환하는 모노레일 너머로 다양한 디자인의 파빌리온을 볼 수 있습니다.

8 테마관 (태양의 탑)

여기서는 태양의 탑을 포함하는 테마관을 소개합니다. 테마관은 오사카 만국 박람회의 테마 '인류의 진보와 조화'를 전시할 시설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축을 지허, 지상, 공중의 공간 축으로 전환하여 대형 지붕과 태양의 탑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하(과거) 전시장은 태양의 탑 정면에 있는 '조화의 광장'(현재는 '태양의 광장')의 지하에 위치하고 생명의 탄생에서 원시 시대인들의 생활 모습 등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온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지상(현재) 전시장은 조화의 광장으로 이곳에서는 목록히 세계를 걸어지고 살아가는 세계 각국의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테마로 한 <세계를 지탱하는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공중(미래) 전시장은 축제 광장의 대형 지붕에 설치된 전시장으로 기술 혁신으로 더욱 편리해진 머지않은 미래인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환원 인종차별과 빈곤, 공해 등 인류를 둘러싼 부(負)의 일면도 전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태양의 탑은 지하 전시에서 공중 전시로 인도하는 도선으로 방문객들은 탑 내부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둘러본 후 공중 전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8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는 탑 내부에 있으며 높이가 41미터, 밑면적의 지름이 약 1미터입니다. 이 나무에는 크고 작은 292점의 생물 모형이 설치되어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원생 생물부터 공룡, 그리고 맨 위에는 인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동시에 과거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존엄과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곳에 있는 생명의 나무는 레플리카이지만 생물의 모형은 일부를 제외하고 실제로 전시되던 것입니다.

8 가변

박람회 당시 테마관 지하 전시 공간에 전시되던 실물입니다. 또한 참신한 디자인은 오키모토 다로가 세계의 민족 가변을 자신의 방식을 이용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박람회 당시의 것입니다.



9 유니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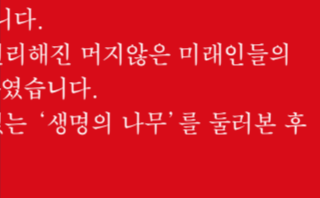
오사카 만국 박람회 전시장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파빌리온 수행원들,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유니폼도 있고 지금도 참신함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화려한 여성 유니폼이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니폼 전시는 만국 박람회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충실히 복제한 것입니다.

10 축제 광장

전국 기념일 작전 외에도 세계의 민속 무용이나 일본 각지의 춤 등 국제색이 풍부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연일 펼쳐진 축제 광장. 해외 여행이 아직 꿈이던 시대. 이곳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인류 아티스트의 무대와 세계의 축제, 민속 예능이 펼쳐지는 '인류 고감의 장'이 되었고 관객에게 문화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10 로봇 데메, 로봇 데쿠

축전, 휴식,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축제 광장', 행사에 맞는 연출을 위해 조명, 음향, 컴퓨터, 로봇 등의 기술이 100 퍼센트 활용되었고 축제 광장에는 '데메'와 '데쿠'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2대의 로봇이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높이는 14미터, 머리는 조종실, 몸통에는 조명, 음향 장치가 있어 주변의 소리와 빛을 수집하여 메인 컨트롤 실로 송신, 처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명, 음향, 연기, 냄새를 송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데쿠는 서브 컨트롤 스테이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1 백 스테이지의 1500 명

많은 관객을 맞아 활기에 넘쳤던 전시장. 무대 뒤에는 '만국 박람회를 성공시킨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500여만 건의 데이터를 수록한 오퍼레이션 컨트롤 센터, '정보·위생·구급'을 담당할 청소 관리 센터와 진료소, 그리고 경비대, 소방서 등이 관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의 스테파크 사용하던 무전기과 카메라 등이 시대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박람회장의 유도 안내를 위해 간단한 그림 문자로 표시한 픽트 사인이 워력을 발휘했으며 관계자용으로 대여된 전기 자전거와 이동용 전기 자동차 등도 활약했습니다.

11 픽트 사인

박람회장 내의 유도 안내를 위해,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방문을 예상하여 일본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 간단한 그림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되었습니다. 이 사인 중에서 미야 이희의 대부분의 것들은 도쿄 올림픽(1964년)과 몬트리올 박람회(1967년) 등에서 사용된 그림 문자를 참고로 하여 디자인을 통일한 것입니다.

11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시설 관리를 순찰차나 박람회장 내의 택시로 활용되었습니다. 6인승 택시는 10분 200엔으로 원하는 곳까지 탈 수 있었습니다.

12 엑스포'70 컬렉션

당시, 레코드를 비롯하여 박람회장 안팎에서 판매되던 오사카 만국 박람회 관련 상품, 무료로 배부되던 메달과 배지 등의 기념품,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만국 박람회 관련 상품들. 또한 각 파빌리온을 둘러싼 전시 벽은 스탬프도 그리움을 상기시키는 일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종이로 만든 파빌리온 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1/300 스케일로 제작되고 이것들을 조합하면 만국 박람회장이 완성되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조금씩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20점 이상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13 Made in EXPO'70 ~ 모든 것은 만국 박람회로부터

오사카 만국 박람회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것,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된 것 등 만국 박람회가 가져온 영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13 에어 돔

미국관, 후지 그림 파빌리온에서 선보인 공기막 구조로 지어진 전시관은 기존의 건축 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수고 막 구조로 된 동 건축의 첫 타이프를 끌었습니다. 이 구조는 어떤 크거나 형태의 건축에도 큰 스펙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때문에 현재는 도쿄돔 등 다양한 건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13 무선 전화

전기 통신관에서는 '꿈의 전화'라고 불리는 무선 전화(휴대 무선 전화기)가 전시되어 일본 어디로든 즉시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휴대 전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울트라 소닉 배스 (인간 세탁기)

산요관의 울트라 소닉 배스는 껍습 안에 든듯하게 앉아서 피부를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사지 뿐이나 초음파의 작용으로 진장과 미용 모두에 효과가 있는 전 자동 욕조입니다. 현재는 간호용 욕조에 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3 전기 자동차

배기 가스와 소음을 내지 않고 축전지와 모터로 달리는 전기 자동차. 일본에 도입된 것은 만국 박람회가 첫 시도로 택시나 박람회장 내 수송, 프레스 카로 활약했습니다.

13 캔 커피 (UCC 우에시마 커피)

1969년 우에시마 커피가 커피 우유에 힌트를 얻어 일본 최초로 우유가 들어간 캔 커피인 'UCC 밀크 커피'를 발매, 만국 박람회장에서 마셔 본 사람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하여 날개 돌진 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13 요구르트

불가리아관에 분고장의 요구르트가 있다는 소식을 메이지 유업의 사원이 유언히 듣고 박람회장에서 맛을 본 것이 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분고장의 맛을 재현한 상품이 완성되어 일본 최초의 플레인 요구르트가 각 가정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4 폐막에서 만국 박람회 기념 공원으로

여기서는 폐막 후의 박람회장 부지 정비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폐막 후 박람회장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던 파빌리온은 철거되어 일부는 도서관으로 활용되는 등 일본 각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파빌리온이 철거되어 빈터가 된 박람회장에 나무를 심어 다시 녹색의 자연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국 박람회 기념 공원은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새로운 테마로 하여 오사카 만국 박람회의 이념을 미래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